

# '전북도 과학축전' 온·오프라인 개최

### 90개 기관 참여 103개 전시·체험 프로그램 구성... 온라인은 내달 1일까지 진행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와 전북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재)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제16회 전라북도 과학축전이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일원과 과학축전 누리집(www.jbsf.co.kr)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열렸다.

이번 과학축전은 지난 26일 오후 2시에 어린이창의체험관 공연장에서 김관영 도지사, 국주영은 도의장, 서거석 전북교육감, 도내 과학기술 관련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전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막식은 전라북도 과학축전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며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의 환영사, 국주영은 도의장의 축사, 제2회 전북과학기술인대상 시상, 개막 퍼포먼스, 과학 체험부스 투어로 축제가 시작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과학기술이 상상을 일상으로 만들어 오고 있다"며, 우리 전북의 꿈도 현실이 돼 가는 중으로 새만금에서 하이퍼튜브 실험을 통해 전북의 신산업과 주력산업이 동반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과학축전을 통해 과학꿈나무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전북과학축전은 사회의 변화와 우리의 미래 모습을 담아내고자 노력하였으며 메타버스 속 세상을 경험하고, 자율주행, 로봇, AI, 드론, 코딩 등의 체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갖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에듀테크 기반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통해



제16회 전라북도 과학축전이 지난 26일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일원에서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도교육감 및 학생들과 함께 체험장을 둘러보고 있다.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학축전 개막식에서는 제2회 전라북도 과학기술인대상 수상자 시상도 진행되었다.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등을 통해 도내 기업의 성장지원과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성도경 비나텍 대표, 김용현 정석케미칼 대표, 양철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 등 3명을 선정하여 메달과 상패가 수여되었다.

올해 전북도 과학축전의 특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하며, 어린이창의체험관에서 개최하고, 특히 소외지역(계축) 배려를 위해 찾아가는

과학축전 등을 운영한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과학축전으로 개최된 것과 달리 2019년도 과학축전 이후 3년 만에 오프라인 전시·체험 부스를 운영했으며, 작년과 같이 과학축전 누리집을 통해서도 온라인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그동안 과학축전은 전북도청에서 개최되어왔으나, 아이들의 과학적 상상력과 창의력 증진을 위한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이 전북 과학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동·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과학기술의 체험과 학습 기회 제공이라는 과학축전의 개최취지와 어울려

이곳에서 과학축전이 처음으로 열리게 됐다.

또한, 전주시에서 개최되어 과학축전 행사에 참가가 어려운 소외지역(계축) 대상으로 과학문화 확산 및 격차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과학축전을 29일 무주 설천고와 30일 진안 부귀중에서 진행하며 과학체험 소외지역 장수, 임실, 진안, 남원, 순창지역 초중고 10곳에 체험키트 500개, 소외계층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등 6개 기관에 체험키트 200여개 등 총 700개를 사전에 배부했다.

올해 제16회 과학축전은 총 90개 연구소, 기관, 학교 등이 참여하여 103개(온라인 47개, 오프라인 56개) 전시 및 체험 콘텐츠를 구성했다.

오프라인은 어린이창의체험관에서 26~28일 3일간 열렸으며, 온라인은 과학축전 누리집(www.jbsf.co.kr)를 통해 다음달 1일까지 열린다.

올해 축전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온택트 체험키트 신청은 1만명이 접수해 2,500여개 체험키트가 마감되었고, 오프라인 부스체험도 마감이 완료되어 과학축전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오프라인 프로그램은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주제관과 하이퍼튜브, 그린모빌리티, 스마트농생명, 탄소융복합소재, 재생에너지, 홀로그래프 등의 전시관 등 56개의 체험부스로 구성됐다.

또한, 온라인 체험관에는 과학·SW 교육·특별 체험관 프로그램 등 47개 세부 콘텐츠가 준비되어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놀이를 겸한 과학교육의 한마당이 될 전망이다.

/김경수 기자



익산시는 '남북철도 특별사진전'을 지난 2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익산역 및 이방(대합실)에서 개최한다.

## '남북철도 특별사진전' 익산역서 개최

### 한국철도 역사·남북철도 연결 위한 노력 담은 25점 전시

익산시가 한국철도 발전사와 남북 철도의 연결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담은 특별사진전을 익산역에서 개최한다.

시는 '남북철도 특별사진전'을 지난 2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익산역 맞이방(대합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일일 2만여 익산역 이용객들과 시민들에게 호남 최대 철도망을 갖춘 익산역의 가치와 국가 발전의 근간인 철도교통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이번 특별사진 전시회를 기획했다. 총 25점의 사진이 전시되는 이번 특별사진전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 경인선 기공식 사진부터 2018년도 남북철도 현지공동 조사 착수 사진까지 시간순으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우리기술로 조립한 첫 증기

기관차인 조선해방자호의 위용과 한국 전쟁 당시 파괴된 철교 등 역사 속 다양한 기차들의 모습들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회를 통해 호남 최대 철도 도시로서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해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역의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전을 통해 남북철도 역사를 보며 고속철도시대의 미래 가능성에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다가올 한반도 평화시대에 철도 중심도시 익산이 유라시아 거점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공감을 부탁드립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상생협의회' 개최

### 13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참여 발전방안·협력사항 등 논의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지난 26일 전북삼라로컬마켓에서 김종훈 정무부지사 주재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농촌진흥청,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13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간담회(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전라북도와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리상생을 위한 소통을 이어나가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서는 전라북도 상생 협조사항 공조, 공공기관별 현안사항을 서로

공유하고 혁신도시의 발전방안, 협력사항 등을 논의했다.

전북도는 협조사항으로 △전북 지역 문제해결플랫폼 참여,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홍보 및 지원 △전북 농촌체험휴양마을 이용 활성화 △쌀 소비촉진 협조 등 공공기관에 지역상생 협조를 적극 당부했다.

기관별 대표 현안 사업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LX공간드림센터' 조성 과 같은 지역발전 사업부터 국민연금공단의 '마을자치연금' 사업과 같은 지역상생의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상생협의회는 이전공공기관(13개 기관), 전북도, 전주시, 완주군 등이 참여하는 공식 소통채널로 부기관장급으로 구성되었으며, 2015년부터 지금까지 총 32회(금번 회수 포함)를 꾸준히 운영해오며 기관별 협력사항을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해결해오고 있다.

/김경수 기자

## 전북도, 닭·오리 계열화사업자 지원 자금 421억원 확보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2022년 축산계열화사업 운영 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6개 닭·오리 계열화사업체에 42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541억원 사업비의 78%에 달한다.

축산계열화사업은 계열화사업을 등록한 닭·오리 사업자에 시설 및 운영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에 선정된 닭 계열화사업체는 (주)하림(120억원), (주)동우팜투데이(80억원), (주)참프레(70억원), (주)사조원(30억원), (주)코리아더커드(30억원)다. 오리 계열화사업체는 (주)유피에프앤비(91억원)다.

이들 업체에는 연리 0~2%, 2년 일시상환 또는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

으로 자금이 지원된다.

또한, 해당 자금은 계열화사업에 소요되는 시설·운영 자금뿐만 아니라 농가에 지급되는 가축 구입비, 사육비, 사육자재비, 가축 또는 축산물 생산 장려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닭·오리 계열화 사업자는 안정적인 가축 사육에 따른 농가소득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축산계열화사업 운영 자금 융자 지원을 통해 최근 사료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와 계열화 업체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닭·오리고기 수급불안 해소 및 가공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